

2010년 상반기 브라질 경제 분석과 하반기 전망

1. 2010년 상반기 국내경제 분석

① 2010년 상반기 중 브라질 국내경제 안정적 성장세 시현

- 2010년 상반기 중 브라질 국내경제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와 최근의 그리스 및 남유럽국가에서 비롯된 신용 불안의 여파를 무난히 감내하면서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2010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2.7%, 전년 동기 대비 9%에 이르는 등 고도 성장세 시현
- 브라질 중앙은행과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이 7% 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1986년에 기록한 7.46% 성장 이후 24년 만의 최대 성장률이 될 것으로 전망

② 내수시장의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 상승 요인 해결이 최대 과제

- 과거 고인플레이션의 폐해 차단을 위해 1999년부터 인플레이션목 표제(inflation target)를 도입·운영 중인 브라질은 금년도 인플레이 목표를 4.5%±2%로 설정함.
- 그러나 이미 중앙은행은 연말까지 약 5.4% 인플레이션을 예상

하고 있으나 브라질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활황에 따라 상한선인 6.5%이내에서 수습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연초 8.75%였던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여 6월말 현재 기준금리는 10.25%이나, 연말까지 2% 포인트 전후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Bolsa Familia 정책, 공무원 급여 인상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 추세이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의 인상은 국채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켜 브라질 정부 재정문제에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10년 상반기 경제 동향(%)

	IPCA (광역물가)	Selic (기준금리)	2010년말 예상		
			IPCA	GDP	Selic
1월~6월	3.09	-	-	-	-
1월	0.75	8.75	4.62	5.40	11.25
2월	0.78	8.75	4.91	5.50	11.25
3월	0.52	8.75	5.18	5.52	11.25
4월	0.57	9.50	5.42	6.06	11.75
5월	0.43	9.50	5.67	6.53	11.75
6월	0.00	10.25	5.55	7.20	12.13

출처: IBGE, 중앙은행

③ 견고한 대외 경제지표 유지

□ 2010년 상반기 환율, 외환보유액 및 경상수지 등의 대외 경제지표 들은 남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한시적인 변동성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대미달러 대비 환율은 연초 상반기 중 달러당 1.77헤알로 부터 최고 1.90헤알 대까지의 변동이 있었으나 6월말 현재 1.75~1.80대에

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감소, 대외이윤 송금의 증가에 의해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대폭적인 외화 유입으로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증가 추세임.
- 2010년 2,400억 달러로 시작했던 외환보유액은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2010년 5월말 현재 223억 달러) 등으로 2010년 6월말 현재 연초대비 131억 달러 증가한 2,5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2. 2010년 하반기 국내경제 전망

㉠ 경제성장 호조세 지속 전망

- 2010년 하반기 브라질 국내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0년 GDP 성장률은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업가동률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
- 특히 브라질의 대표적인 민간경제단체인 제폴리오 바르가스 재단(FGV)이 국내 대기업 7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86%가 투자확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40%가 기업이 생산확대를 위한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의욕이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기업의 투자계획 조사결과 (%)

	투자방침			투자계획 없음
	생산능력 확대	생산 효율화	기계 교체	
2006년	28	34	13	25
2007년	39	32	15	14
2008년	50	24	12	14
2009년	24	36	14	26
2010년	40	28	18	14

출처: FGV

② 내수시장의 안정과 국제 원자재 수요증가세에 따른 수출 증가 예상

- 유럽 경제의 불안요인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 등 국제시장엔 변동요인이 많은 상황이지만 브라질 국내경제는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광석 및 농산물 등의 1차산품에 대한 국제 수요와 시세의 회복 움직임으로 하반기에는 브라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철광석의 경우 금년 2사분기부터 철광석 가격책정 기준이 연간 계약에서 분기별 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톤당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되었으며 3사분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 주요 광물자원개발 기업인 발레(Vale)의 매출은 전년 대비 배증하여 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상수지 적자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③ 안정적인 대외지표 예상

- 세계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내 다국적기업의 대외이익 송금 증가는 브라질 리스크 회피를 위한 투자 철수가 아닌 해외의 모회사

를 지원하기 위한 송금의 성격이 강함.

- 경제위기로부터의 순조로운 회복과 탄탄한 내수시장 성장으로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금융투자(주식이나 국채등)등은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 아울러,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발레(Vale) 등 브라질 기업의 유로채 발행과 외국통화 차입에 의한 외자의 유입 등으로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계속하여 증가 경향을 유지할 전망이며, 헤알화 환율도 안정적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끝>.